



OVERWATCH®

트레이서 - 런던의 부름

BILZARD
ENTERTAINMENT

#5/5



MARIKO TAMAKI
BABS TARR



트레이서 — 런던의 부름

#5/5



오버워치 해체 후 수년이 흐르고, 세상에는 불의가 횡행하며 자기 잇속만 챙기려는 세력들이 판을 칩니다. 지각력과 지능을 갖춘 옴닉이라는 로봇들은 옴닉 사태 후로 수십 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고군분투하며, 차별의 종식과 평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다시 영웅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웅은 흔히 뜻밖의 장소에서 나타나죠.

리지와 트레이서는 케이스와 그의 메시지를 완전히 몰아내기 위해 지하 세계로 돌아갑니다. 한편 케이스는 자신에 대한 가짜 암살 시도를 계획해 옴닉 순교자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기가 그의 술수를 파악해 냅니다. 하지만 이기는 케이스의 목표가 되어 그의 손아귀에 붙들리게 됩니다.

글 *MARIKO TAMAKI* 그림 *BABS TARR* 그림 어시스턴트 *HEATHER DANFORTH*
레이아웃 *HUNTER CLARK* 채색 *RACHAEL COHEN* 영문 식자 *DERON BENNETT*
한글 식자 *SOPHIA HONG* 표지 *BENGAL*

다크 호스 코믹스

대표 및 발행인 *MIKE RICHARDSON* 선임 편집자 *PHILIP R. SIMON*
디자이너 *PATRICK SATTERFIELD* 디지털 아트 테크니션 *ALLYSON HALLER*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편집 팀

수석 편집자 *CHLOE FRABONI, PAUL MORRISSEY* 프로듀서 *FELICE HUANG, BRIANNE MESSINA, DEREK ROSENBERG*
소비자 제품 디렉터 *BYRON PARNELL* 북 아트 & 디자인 매니저 *BETSY PETERSCHMIDT*
크리에이티브 자문 *JEFF KAPLAN, MICHAEL CHU, JEFF CHAMBERLAIN, ARNOLD TSANG, GEORGE KRSTIC, ALYSSA WONG, SEAN COPELAND, MADI BUCKINGHAM*



도움 주신 분 *DAVID SEEHOLZER*

DarkHorse.com Facebook.com/DarkHorseComics Twitter.com/DarkHorseComics

OVERWATCH® © 2021 Blizzard Entertainment, Inc. 모든 권리는 Blizzard Entertainment, Inc.에 있습니다. 미국 및 다른 국가에서 Overwatch는 Blizzard Entertainment, Inc.의 상표이고 Blizzard Entertainment는 상표 또는 등록상표입니다. Dark Horse Comics®와 Dark Horse 로고는 여러 카테고리 및 국가에서 등록된 Dark Horse Comics LLC의 상표입니다. 모든 권리는 Dark Horse Comics LLC에 있습니다. Dark Horse Comics LLC의 명시적인 서면 동의 없이는 본 발행물의 어떤 부분도 어떤 형태나 방법으로든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없습니다. 본 발행물에 등장하는 이름, 인물, 장소 및 사건은 저자의 상상력의 산물이거나 허구로서 사용됩니다. 풍자의 의도가 없는 실존 인물(생존 여부와 무관), 사건, 기관, 장소와의 유사성은 전적으로 우연입니다.

이 세상에는 별별 지도자가 다 있다.

각자가 생각하는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주저 없이 몸을 선도, 자행하려 하는 파괴의 정도도 서로 다르다.

케이스의 추종자들은 아마, 그자의 선이 옴닉의 목숨에까지 이르지 않는 걸 생각했겠지.

이기.

그건 착각이었다.

놓아줘, 케이스!

트레이서, 케이스의 옴닉들 소리가 들려요. 아무래도 곧...

...머릿수로
엄청 밀리게
생겼어요.

숨어!

해결사가
왔어.

이제 해결사가
어떡해야 하나
파악만 하면 돼.

됐다!

가속기만
잠시 버텨
주면...

아우!

트레이서!
괜찮아요?

꼭 잡아!



구해 주셔서 고마워요.

진짜 구하려면 아직 멀었어.



엄폐물이 필요해.

이쪽 위--



웁!

악!

--왼쪽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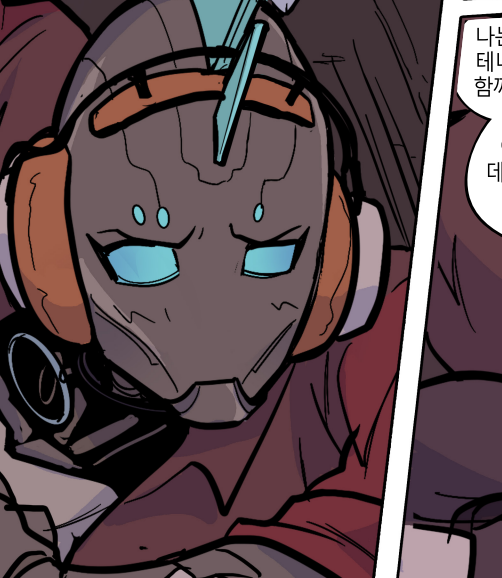


이 옴닉들은 탈출하려 해요. 다른 옴닉은 케이스가 모두 한데 몰아 두었고요. 그들은 억지로 케이스 편에서 싸우고 있어요.

리지! 이걸--

이들 말고도 더 있어?

터널 곳곳에 흩어져 있어요.



나는 서쪽을 맡을 테니 너는 리지와 함께 동쪽을 맡아.

힘을 보태겠다는 이가 있으면 여기로 데려와. 그런 다음 지하 세계에서 함께 빠져나가는 거야.

네.



몇 시간이 흐르고
많은 음닉을 구한 후...

좋아.
인원이 많네.
모두 무사히
빠져나가야
하고.

모두 소리
죽이고
조심해요.

지면으로 가는
터널은 왼쪽으로
돌면 나와요.



멈춰.

부탁할게요.
그냥 지상으로
나가려 하는
것뿐이에요.

인간에
대한 혁명에
동참하기를
거부하는 음닉은...

...우리의 적인
인간과 똑같은
배신자다.





이쪽이에요!

모두 데리고
나갑니다.

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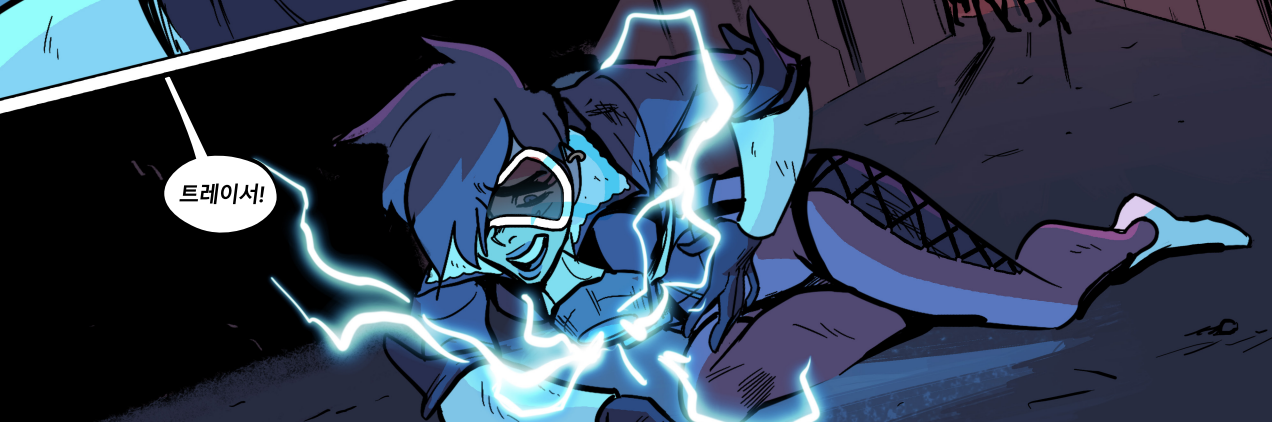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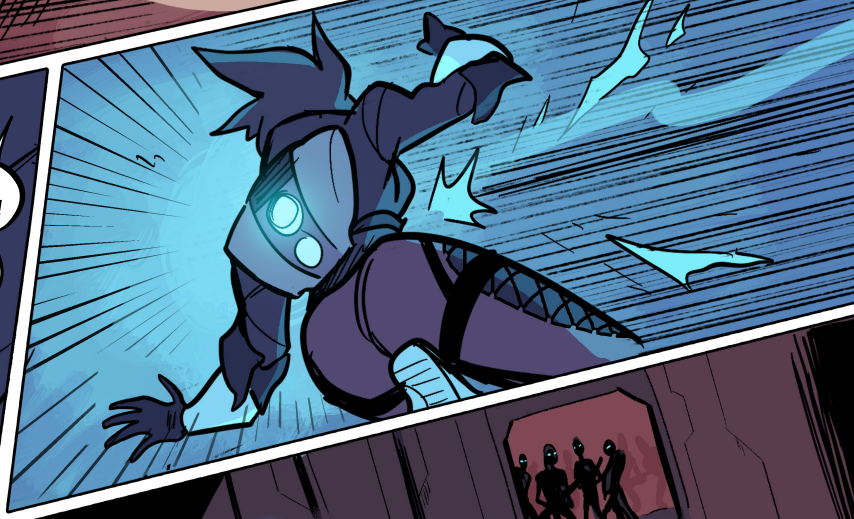


날 죽이고
싶으면 잡아
보시지.



윽
안 돼!

가속기의
손상이 너무
심해. 이래선--



트레이서!



도움이
필요해
보이네.

윈스턴! 이렇게
반가울 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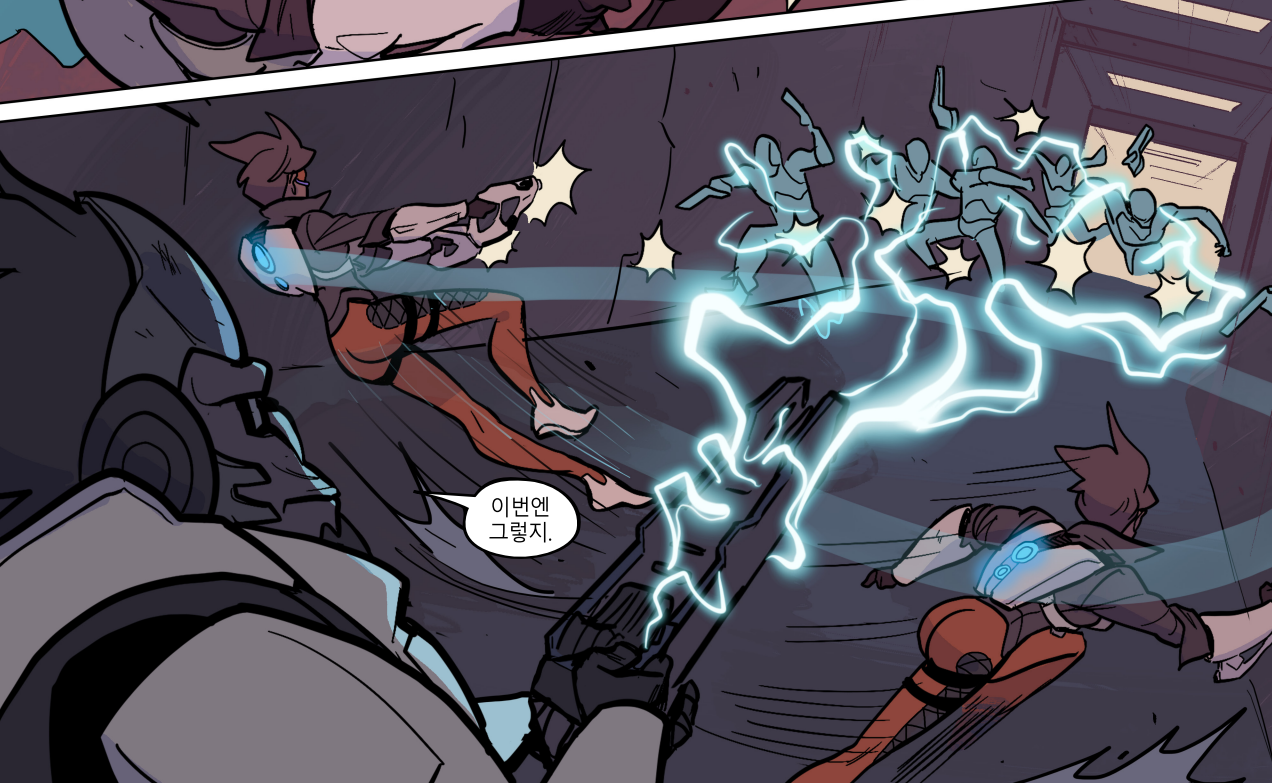
최대한 빨리 왔어.

가속기에 문제가 있는 모양이네.



일단 포화를 벗어나고 나서 이야기하자고.

지원군이 더 오는 건 아니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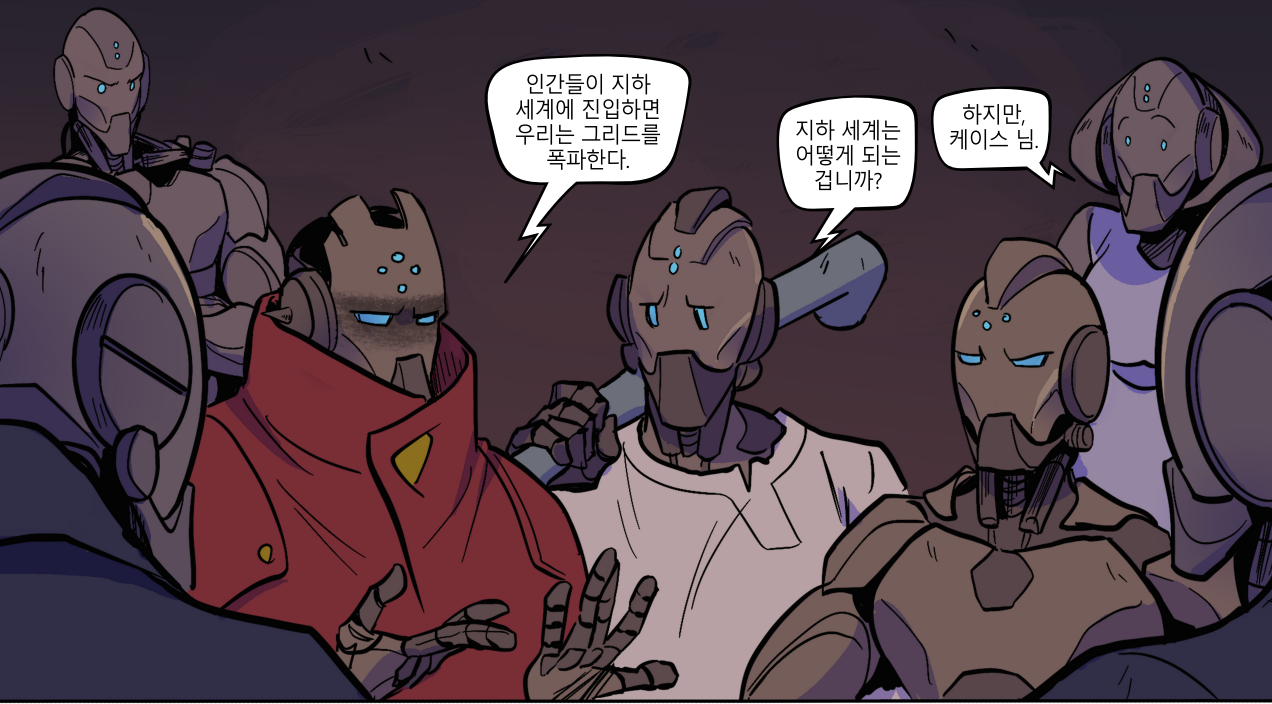
이번엔 그렇지.



나로
만족해 줘.



접수할게.



인간들이 지하 세계에 진입하면 우리는 그리드를 폭파한다.

지하 세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지만, 케이스 님.



예비 발전기로 당장 필요한 것은 해결될 것이다.

그리드는 우리가 가진 최고의 무기다. 인간들도 우리가 그것을 무기로 이용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할 것이야.



그리드를 폭파하면 인간들의 방비는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다.



지하 세계에 남아 있는 움닉들은 어떡합니까? 터널에 아직 대피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수백 명이--

우리 뒤에 서지 않은 움닉은 승리를 위한 제물일 뿐이다.



이기와 리지는 입구로 가.
 나랑 윈스턴은 케이스의 군대를 지하 세계 안으로 유인할 거야.



케이스를 꼭 막아 주세요. 그자가 그리드를 파괴하면 지하 세계의 움닉들은 파멸하고 말 거예요.

알았어.



흔어지지 마세요. 케이스는 저랑 윈스턴이 처리할 테니까요.



각오는 댔어?

댔지.



네가 내 교신을 받아서 다행이야.

난 네가 불러 줘서 다행인데!

트레이서.. 화가 안 났나 보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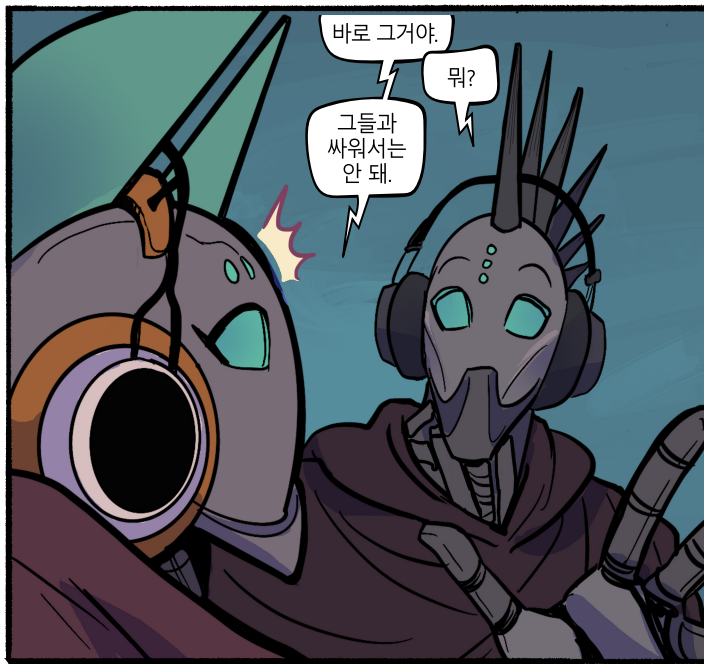
왜 화를 내야 하는데?



내가 막 분풀이를 했거든. 레이디가 죽고, 내가 트레이서 탓을 했어.

레이디는 죽었잖아. 화가 나는 게 정상이야, 이기.

몬다타 님께서 우리가 하나라고 하셨어. 하나라는 건... 우리 중의 일부가 상처를 주더라도 맞서 싸우지 않고 받아들인다는 뜻이 아닐까.



바로 그거야.

뭐?

그들과 싸워서 안 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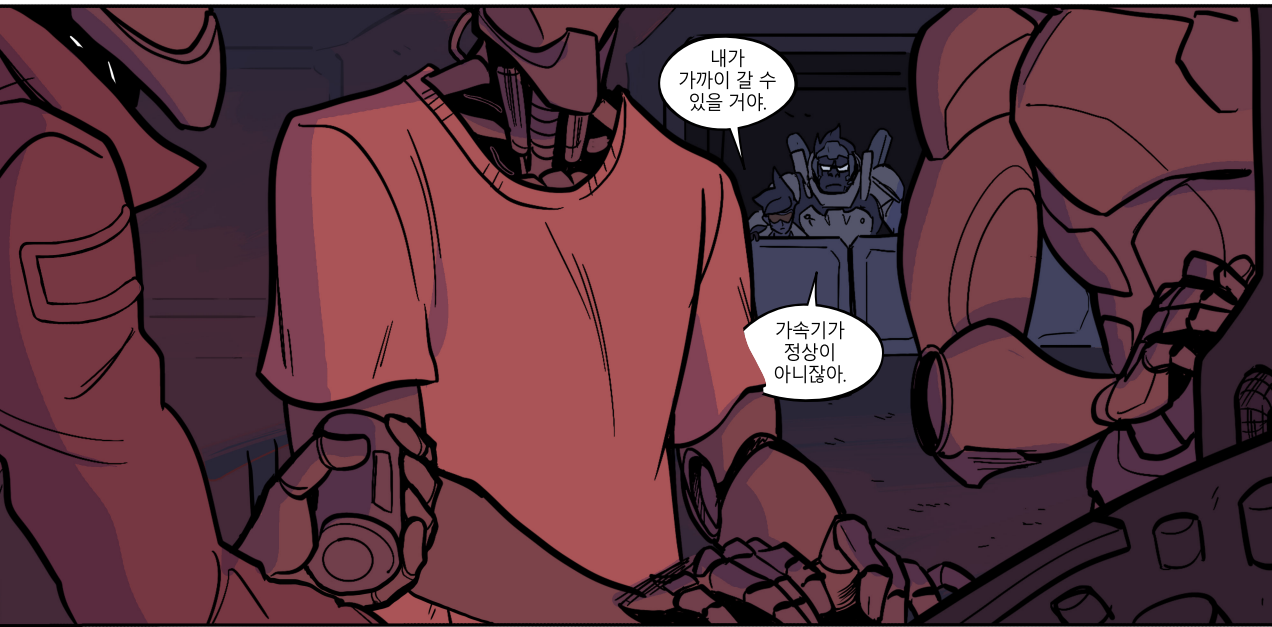


리지. 우리가 모두를 구할 수 있어.



저들이야.

저쪽으로
쏘다간 그리드가
맞을 수도 있어.



내가
가까이 갈 수
있을 거야.

가속기가
정상이
아니잖아.



그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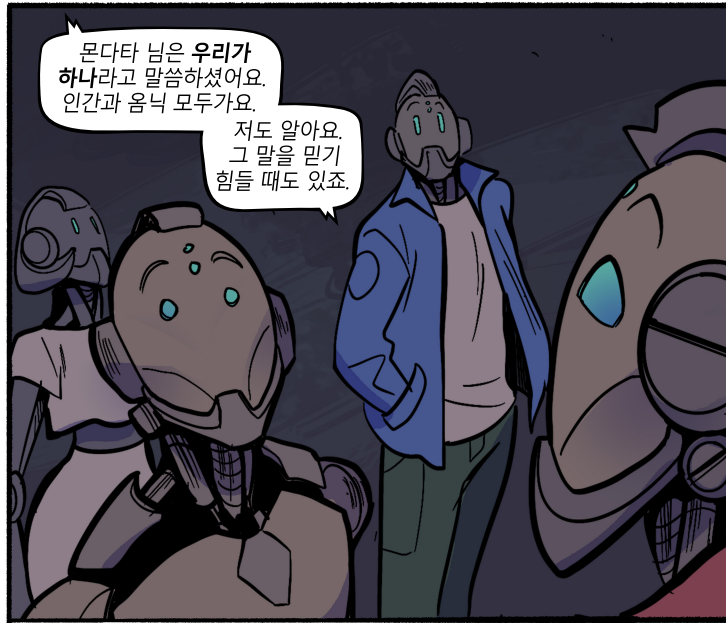
케이스 편에서
싸우는 올닉 여러분!
귀 기울여 주세요!



전 이기예요.
올닉이요! 이미
아시겠지만요.



제 말을 들어 주세요! 케이스는
우리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리드를 파괴하려 하고
있어요! 우리의 터전에 동력을
공급하는 그리드예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죠?!



몬다타 님은 우리가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과 옴닉 모두가요.

저도 알아요.
그 말을 믿기
힘들 때도 있죠.



물론 인간들도
깨달아야 해요.

하지만
어떤 인간들은
이미 우리와
하나예요.

진짜 혁명은, 우리가
과거를 되새기고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거예요.

싸움을
그만두라고 하는
게 아니예요.

인간에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저와 함께
옳은 편에서 싸워
달라고 하는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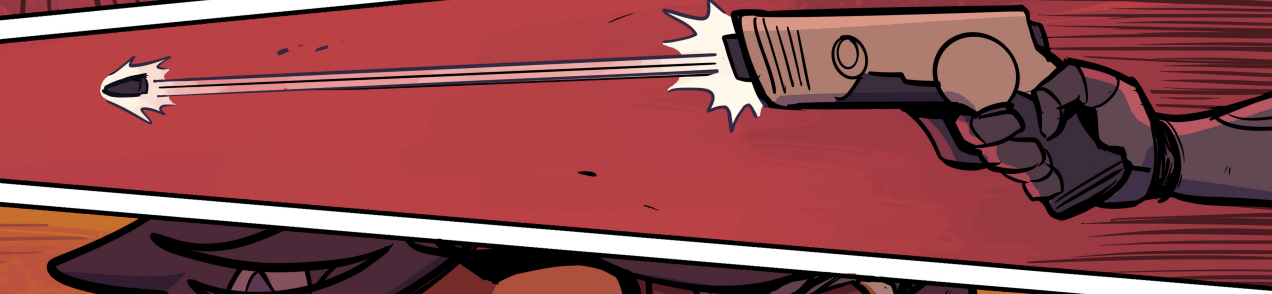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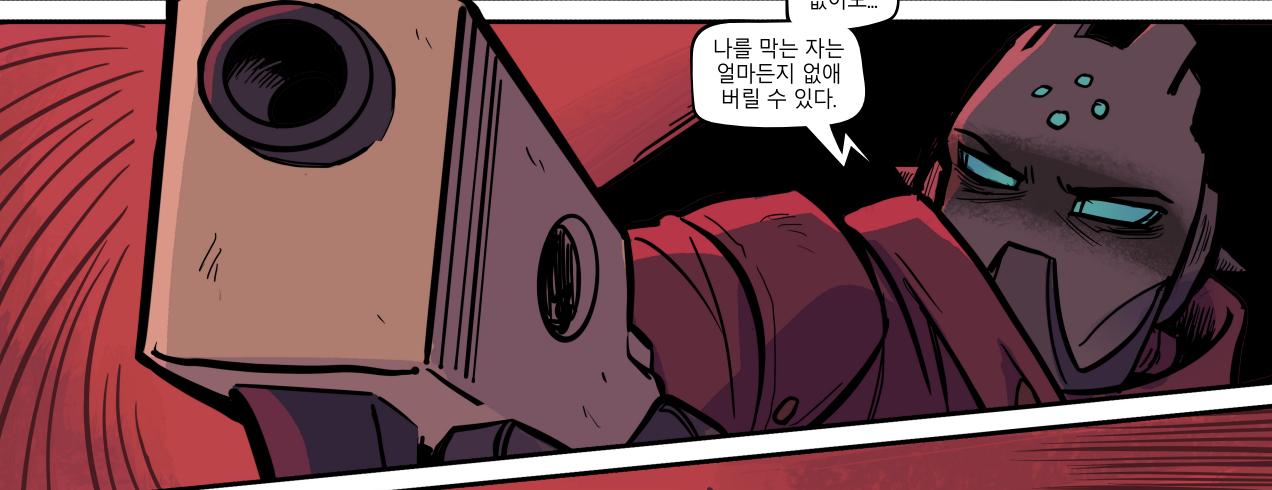
무슨 짓이냐?



좋아.

군대가
없어도...

나를 막는 자는
얼마든지 없애
버릴 수 있다.



안 돼!

트레이서!
가속기!

나는...

레나!

...군인이 아니었던
적이 없다.

나의 사명은 언제나
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이상을, 사람들을
옴니들을, 그리고 운동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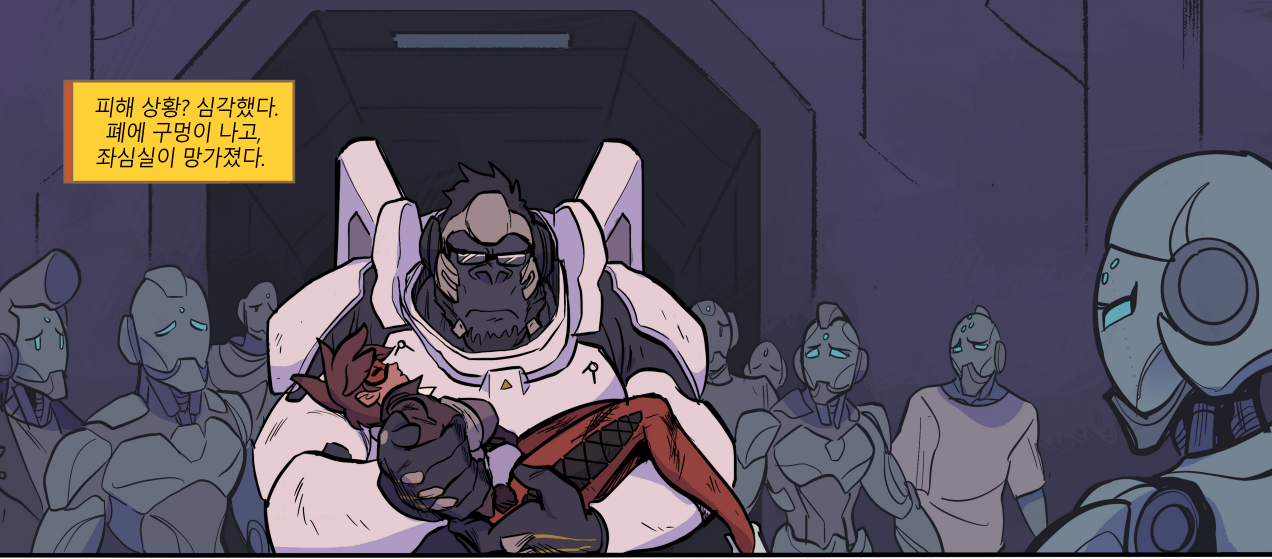
그게 나고,
그게 내 일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으아아악!



피해 상황? 심각했다.
폐에 구멍이 나고,
좌심실이 망가졌다.



"시간 역행으로 빠져나오기는
무리일 줄 알았다. 가속기가
손상되었으니 더더욱. 트레이서는
총알에 맞고 또 맞았다."



수술은 여덟
시간이 걸렸다.



물론 나는 알고 있었다.
좋은 사람들이 내가
이겨 내기만을 고대하고
있다는 것을.



이기는 내가 수술실에
있는 동안 내내 이기 팝의
"러스트 포 라이프"를
반복해서 틀었다고 했다.

난 이기에게 그
덕분인가 보다, 했다.



일주일
지나고 난
멀쩡해졌으니까.

전사는 포기하지
않는다. 가끔씩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할 뿐.

가속기는
이제 정상이야.

좋았어!

케이스에
대한 정보는
들어왔어? 탈론
편이었던 거야?

지금까지는 연결 고리가
발견되지 않았어. 위치도
파악되지 않았고, 널 섹터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은 드네.

그보다 나은
소식도 있어..

리지와 내가
협력해서 그리드의
손상을 모두
수리했어.

이 순간
무엇보다
중요한 건..



또 전투를
치를 준비가
됐냐는 거지.



윈스턴이랑
나랑 세계와
맞붙는다고?
더할 나위
없지.



다시
싸우자고!
준비는
됐어!